위성방송시대의 포교환경

위협 받는 안방 법당

질 높은 컨텐츠 '숙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리모콘을 돌리면 140여개에 이르는 채널들이 쏟아진다. 3월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위성 방송으로 다채널 시대가 본격화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영상 포교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안방 신행환경의 혁명적 전환

2002년 5월 어느날, 대구에 사는 40대 김모 보살이 거실의 TV를 켠다. TV 리모콘에서 '즐겨보기' 버튼을 누르자 불교TV의 채널 번호와 프로그램 시간이 화면에 나타났다. 평소 친견하고 싶었던 큰스님 법문 프로그램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2시. 다시 예정된 시간에 TV를 켰다. 법문을 듣다 보니 내용이 너무 좋아 저장을 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꺼내보고 싶어졌다. 법문하는 스님의 이력 또한 궁금해졌다. 김 보살은 즉시 대학생 아들의 도움을 받아 리모콘에 달린 볼마우스를 움직여 TV 화면의 커서를 스님 얼굴에 놓고 클릭하자 우측 상단에 작은 창이 뜬다. 화면의 설명에 따라 선택하자 법문 원고와 스님의 이력 사항이 화면에 나타났다. 김 보살은 "신기하다"며 감탄을 연발하고 리모콘의 '데이터 채널'을 누르자 즉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TV 화면 하단에 E메일 서비스가 떴다. 내친김에 법문 내용중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글로 써 법문한 스님에게 E 메일을 보낸다.

이런 신행 생활의 변화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바로 위성방송의 쌍방향성으로 가능하게 됐다. 깊은 산중의 사찰에도 문자나 영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텔레뱅킹, 쌍방향 주문 서비스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들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케이블이 들어갈 수 없어 불교 영상매체를 접할 수 없었던 사찰들에서도 교계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스님이나 재가불자들이 원하는 포교 영상 자료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 포교나 신행 생활을 하기가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컨텐츠 없이는 공염불

이런 포교환경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다양하고 풍부한 컨텐츠의 뒷받침이다. 무더기로 쏟아지는 상업방송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불교 영상 매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게 교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 교계의 방송이나 포교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불교방송 홍사성 본부장은 "상업방송이 범람하는 다매체 시대에서 종교방송이 수익을 창출하며 상업방송들과 경쟁에 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크다"며 "타종교방송처럼 종단이나 규모가 큰 사찰들의 지원아래 말 그대로 부처님의 정법을 알리는 순수한 포교수단으로 적극 활용될때 포교 영상 매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자운 디지털 청소년 상담실장도 "폭력, 음란 등 청소년 유해환경이 도처에 숨어있는 상업방송들의 틈바구니에서 불교방송 매체의 생존전략은 감로법문이나 이해하기 쉬운 교리강좌와 같은 포교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며 "불교TV가 케이블TV에서와 같은 식의 답습이 반복된다면 위성방송에서도 설땅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불교TV 위성방송 담당 노원래 차장은 "올 한해는 케이블 TV와 70% 정도는 동일한 프로그램 편성을 실시할 것"이라며 "하지만 위성방송에 대비해 현재 다큐멘터리 등 외주제작된 국내외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노 차장은 "올해말까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가입자수가 달성되면 불교TV도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불자들의 포교에 큰 도움이 되는 고승법문이나 교리강좌 등 일반 방송과 차별화된 질 높은 컨텐츠 개발이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

위성방송이 실시되면 중국의 연변과 만주, 일본 북해도 지역 등 아시아 불교권 국가에 살고 있는 해외 교포들도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어 해외 포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미 방영된 내용을 재탕, 삼탕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컨텐츠를 채워나가거나 자칫 싸구려 외국 프로그램을 사다 틀어주는 등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다면 케이블 TV에서와 같은 실패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앞에 성큼다가와 있는 위성방송 시대에 불교 영상 매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포교에 효과적인 컨텐츠 확보와 철저한 서비스 무장이 필수적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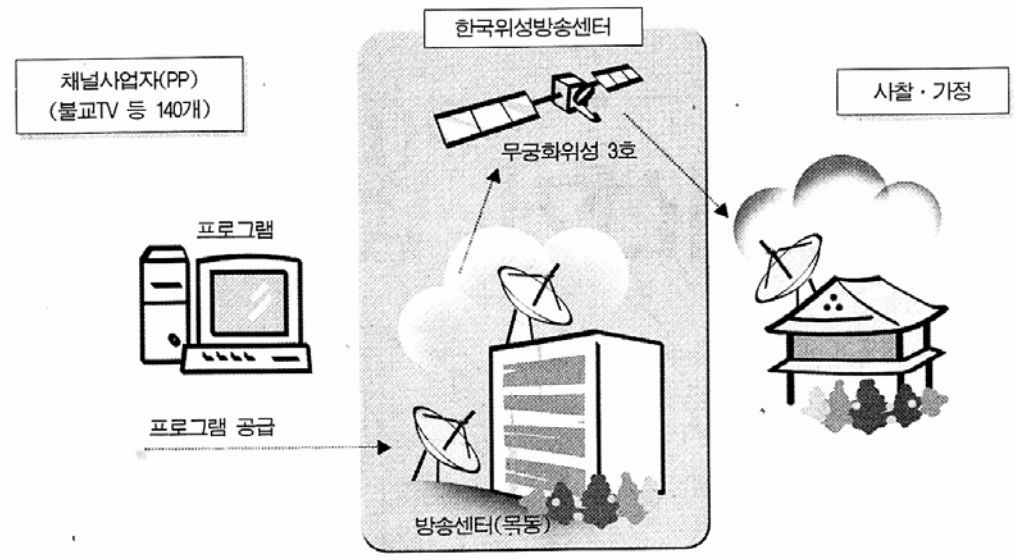
법문 원고 서비스 등 영상포교 변화

종교채널 자생력 확보 '쉽지 않은 길'

140개 채널 3월 개국

상업방송 '홍수' 종교·교양 '열세'

내년 3월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TV 채널 81개와 오디오 채널 60개 등 141개를 볼수 있다. TV 채널을 살펴보면 △영화 11개 △스포츠 6개 △음악 5개 △오락 7개 △교육·2개 △정보 9개 △취미 생활 7개 △다큐 2개 △뉴스 2개 △공공 3개 △홈쇼핑 3개 △종교 3개(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 있다. 여기에 유료 외국방송 채널 10개가 추가된다. 또 오디오 채널은 60개 모두가 클래식, 팝송 등 음악채널이다. 이와같이 위성방송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50여개 채널이 영화, 음악 등 이른바 엔터테인먼트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 위성방송은 상업방송에 밀려 사면초가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많다. 이에 교계의 일각에서는 불교위성 TV가 상업방송의 홍수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스님들의 법문이나 알기쉬운 교리 강좌 등 경쟁력을 갖춘 편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기에 경영난을 핑계로 컨텐츠의 질을 높이는데 무기력한 경영진의 발상전환과 수많은 불교의 유·무형 자산을 완성도 높은 영상언어로 재창조하겠다는 제작진들의 의지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이 프로그램 공급사(PP)로부터 전파를 받아 무궁화 위성 3호로 보낸뒤 지상으로 전파를 쏘게 되면 개별 수신자들이 위성TV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불교 라디오-케이블TV-위성 공조 '필연'"

전문가가 말하는 위성방송시대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디지털 위성 방송은 수신을 위해 각 가정의 지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편화되는데는 일정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위성방송의 시작은 다양한 방송이 다양한 취향 집단을 찾아가는 이른바 협송(narrow-casting) 시대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불교계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대해 그동안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왔다. 케이블 텔리비전이 도입될 때는 불교 TV를 설립했고, 위성 방송에도 불교 채널을 서비스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발빠른 조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시행착오를 거듭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방송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지 못해 운영, 편성, 홍보 등 전반에 걸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케이블 텔리비전 시대를 교사로 삼아 위성방송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매체들은 아주 협소하게 규정된 시청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있다. 초점이 명확한 시청자층에 소구하는 편성, 제작, 홍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케이블 텔리비전이 지상파 방송에 비해 훨씬 제한된 인구 층을 대상으로 하고, 위성방송은 케이블 텔리비전보다 더욱 좁혀진 시청자 층에 소구하게 된다. 명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은 시청자 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위성방송이 시작되면 불교계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케이블 텔리비전 방송, 위성방송 불교 채널 등 3개의 방송 창구를 갖게 된다. 비록 제작주체는 다르지만 이 세 주체는 공조체제를 갖추고 역할 분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불교 방송계는 공조를 통해 종교 방송은 대체로 기존 신도를 위한 서비스, 새로운 신도 확보를 위한 포교, 해당 종교 문화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서비스 등을 어느 창구가 가장 잘 행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 위성방송은 아주 좁혀진 시청자 층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적합한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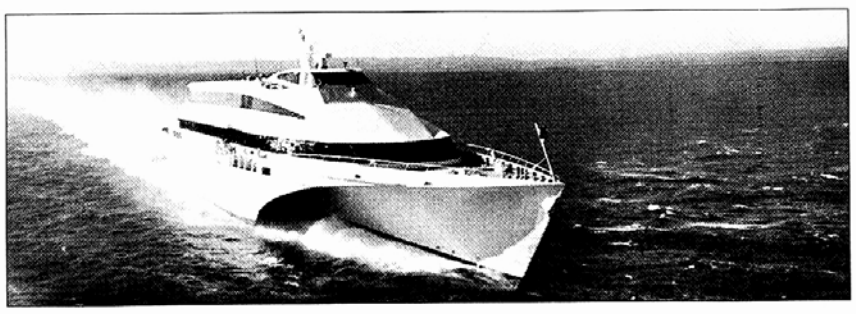
케이블 방송 출범시에 보여주었던 과도한 투자나 큰 사업구상은 피해야 한다. 기존 불교 TV가 제작했던 방송 내용들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지혜도 요구된다. 위성 방송은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혹은 영화 등과 같은 다른 매체의 내용을 재활용하는 의미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아직 고화질 텔리비전 수상기가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화질 등에는 큰 신경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므로 선불리 디지털 제작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큰 투자는 피해야 한다. 디지털 제작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오히려 케이블 방송이나 영화 등에 투자를 늘려 2, 3중으로 영상 컨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불교 대중 매체간의 공조, 새로운 컨텐츠 확보를 위한 지혜로운 투자 등을 통해 위성방송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매체의 출범이라는 계기를 불교 영상 매체들이 활용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위성방송이 출범하는 3월은 불교 대중 매체들이 불교의 대중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최후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위성방송의 시작은 140여개가 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다.

2002 새해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뜨거운 열기로 달아오른 월드컵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전 세계인의 축제가 열리는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저희 (株)武星 임직원은 한마음으로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며
2002년 3월, 울산-고쿠라(일본)간 쾌속 항로를 개설합니다.
세종 8년 울산이 일본과 개항한 이래 600년만에
울산과 일본간의 역사적인 바닷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3시간대의 더욱 가까운 이웃입니다.

임직원 일동

MSC
(株)武星·武星海運(株)·(株)韓日크루즈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5-3 국제여객터미널
TEL 051)441-8888·051)441-8886

大韓佛敎 天台宗 釜山三光寺

주지 김도원
총무 서덕재 교무 정도웅 재무 김광성

◆삼광사 신도회
· 신도회장 안영일
· 부회장 윤인오
부회장 오귀분
· 총무위원 김종기
· 교무위원 김수웅
· 재무위원 이화순
· 재무위원 주랑월자
· 재무위원 신순옥
· 사업위원 민철규
· 기획위원 조수웅
· 조직위원 이영균
· 홍보위원 김형대
· 섭외위원 문경용
· 부녀위원 김화순

◆지회장단
· 부산진구지회장 한옥현
· 동래구지회장 김석홍
· 남구지회장 장군섭
· 해운대구지회장 하기수
· 금정구지회장 이상호
· 북구지회장 차재철
· 영도구지회장 이병호
· 사하구지회장 김범두
· 동구지회장 구영회
· 서구지회장 윤철준
· 중구지회장 최종경
· 강서구지회장 송종관
· 연제구지회장 이선장
· 사상구지회장 문찬철
· 수영구부지회장 강재복

◆신행단체
· 청년회 회장 이범석
· 봉사회 회장 김홍선
· 지장회 회장 박영채
· 처사회 회장 김성춘
· 화엄합창단 단장 김선희
· 부일회 회장 정옥순
· 원 회 회장 김덕이
· 전통요리 회장 정숙자
· 차문화회 회장 박강자
· 관음회 회장 이명성
· 교원불자회 회장 김종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전화 : (051) 808-7111~5 / 팩스 : (051) 803-1332 / 인터넷 삼광사(http://www.samkwangsa.or.kr)